

인문계

성균관대학교

2022

논술
가이드북

2022 SKKU 논술가이드북

이 가이드북은 성균관대학교 수시 논술우수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논술시험 대비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한 권의 가이드북으로도 충분히 성균관대 논술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균관대 논술전형 안내, 논술시험의 특징 및 유형 해설 등을 실었습니다. 더불어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모의논술과 답안지 견본을 제공하여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ontents

Chapter 1 **성균관대학교 논술우수전형의 이해** 02

1.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우수전형 안내	04
2. 2022학년도 논술시험 경향 및 유형	10
3. 출제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	12
4. 교사가 알려주는 논술시험 대비요령	14
5. 논술 실전 Q&A	16
6. 논술시험 유의사항	18
7. 2021학년도 합격자 인터뷰	20

Chapter 2 **2022학년도 모의논술** 24

1.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인문1]	26
2. 2022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인문1]	32
3. 모의논술 출제의도 및 출제방향 [인문1]	40
4. 모의논술 문제 분석 [인문1]	41
5.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인문2]	42
6. 2022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인문2]	48



1

Chapter

성균관대학교
논술우수전형의 이해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가이드북

1.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우수전형 안내	04
2. 2022학년도 논술시험 경향 및 유형	10
3. 출제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	12
4. 교사가 알려주는 논술시험 대비요령	14
5. 논술 실전 Q&A	16
6. 논술시험 유의사항	18
7. 2021학년도 합격자 인터뷰	20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우수전형 안내

성균관대학교 논술우수전형에서는 논술시험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입니다. 즉, 학생부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논술 실력으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든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만큼 모의논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전과 같이 연습한다면 누구나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전형 방법

-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논술 60% + 학생부(교과) 40%
※ 수능 최저학력기준 있음
- 선발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및 논술시험 성적 합산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논술시험 안내
 - ① 시험 시간: 100분
 - ② 평가 내용
 - 인문계: 국어, 사회 (역사/도덕 포함)
 - 자연계: 수학, 과학

- ③ 출제 유형
 - 인문계: 3문제

문제 1 요약형 → 문제 2 비판적평가형 + 설명형 → 문제 3 의견제 시험

- 자연계: 수학 2문제 + 과학 1문제

문제 1 수학 → 문제 2 수학 → 문제 3 과학 3과목 중 1문제

• (물리학 I / 화학 I / 생명과학 I
3개 과목 중 1개 과목 선택)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 357명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설치 학부 / 학과
인문계	인문과학계열	40	유학·동양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중어중문학, 독어독문학, 러시아어문학, 한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사회과학계열	40	행정학, 정치외교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소비자학, 아동·청소년학, 경제학, 통계학
	경영학	25	
	글로벌리더학	15	
	글로벌경제학	15	
	글로벌경영학	15	
자연계	자연과학계열	35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식품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 융합생명공학
	전자전기공학부	25	
	공학계열	80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 나노공학
	소프트웨어학	10	
	반도체시스템공학	12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10	
	건축학(5년제)	15	
	약학	5	
	건설환경공학부	15	
합계		357	

※계열 모집단위 입학생은 교양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2학년 진급 시 모집단위에 설치된 학부/학과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1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각 입학계열에 설치된 학부/학과에 진입함(설치 학부/학과는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수능최저 학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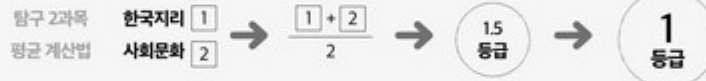
• 수능 최저학력기준

구분		수능 최저학력기준	공통 요건
인문계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	국어, 수학, 사탐/과탐(2개 과목 평균) 중 2개 등급 합 4이내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국어, 수학, 사탐/과탐(2개 과목 평균) 중 2개 등급 합 3이내	
자연계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학, 건설환경공학부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과탐(2개 과목 평균) 중 2개 등급 합 4이내	
	약학, 소프트웨어학, 반도체시스템공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과탐(1개 과목) 등급 합 3이내	

※ 인문계는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 탐구영역 2개 과목 평균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Tip ※ 탐구영역 2개 과목 평균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수능필수 응시 영역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직탐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인문계	○		○		○	○		X	○
자연계	○		X	○	○	X	○	X	○

※ 1. 탐구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함

2. 자연계는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기하 중 1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5

학생부
반영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구분	내용
반영점수	40점
반영지표	석차등급 -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이 모두 기재된 교과 - 성적이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미반영
반영교과(군)	인문계 :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교과(군) 전 과목 자연계 :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군) 전 과목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① 석차등급에 따른 반영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40	39.8	39.5	39	38	30	20	10	0

$$\textcircled{2} \text{ 학생부(교과)성적} = \frac{\sum(\text{과목별 석차등급 반영점수} \times \text{과목별 이수단위})}{\sum \text{이수단위}}$$

• 비교내신 적용 기준

- 대상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 졸업자, 반영 교과성적(석차등급)이 없는 자 등
- 적용기준 : 논술시험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6

동점자 처리방법

- ① 논술시험 취득 점수 상위자
 - ② 논술 우선순위 문항 취득점수 상위자
 - (인문계) 배점이 높은 문항 > 배점이 동일한 경우 문제 번호가 빠른 문항
 - (자연계) 수학(1,2) 합산 점수 > 수학1 점수
 - ③ 학생부 과목별 석차등급 상위자
 - 수학 > 국어 > 사회(인문계)/과학(자연계) > 영어
- ※비교대상 대상자는 논술시험 성적에 의한 비교대상 등급 적용

7

전형 일정

• 전체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원서접수		2021. 9. 10.(금) 10:00 ~ 9. 13.(월) 17:00	- 원서접수 사이트: 진학사 (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		2021. 9. 13.(월) 10:00 ~ 9. 15.(수) 17:00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 - 마감일자 등기우편소인 유효
논술 시험장 발표		2021. 11. 3.(수)	-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시험장 조회 - 시험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수원)
논술 시험	인문계	2021. 11. 20.(토)	
	자연계	2021. 11. 21.(일)	
합격자 발표		2021. 12. 16.(목) 이전	
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2021. 12. 17.(금) 10:00 ~ 2021. 12. 20.(월) 16:00	-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 - 추가합격자는 합격 차수별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함
추가합격자 발표		2021. 12. 21.(화) ~ 2021. 12. 27.(월) 21:00	
추가합격자 등록		2021. 12. 21.(화) ~ 2021. 12. 28.(화) 16:00	
합격자 최종등록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 2. 11.(금) 16:00	

● 모집단위별 논술시험 일정

- 일자: 2021.11.20.(토) ~ 2021.11.21.(일), 양일간 진행

구분		인문계 (11/20)	자연계 (11/21)	비고
		모집단위		
1교시	9:00 ~ 10:40 (08:30 입실완료)	경영학 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공학계열	- 시험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 (수원)* -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필기구
2교시	13:00 ~ 14:40 (12:30 입실완료)	인문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건축학(5년제) 건설환경공학부	
3교시	16:30 ~ 18:10 (16:00 입실완료)	사회과학계열	약학 소프트웨어학 반도체시스템공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 수험생이 지원한 모집단위 및 수험번호 순서와 관계없이 시험장소를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수원) 중 한 곳에 임의 지정 배정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논술시험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논술경향 및 유형

1

논술시험 특징

공교육 기반형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

- 일정한 출제 패턴 유지
-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

교육과정 기반형

- 인문사회교과의 통합

텍스트 분석 적용형

텍스트 분석 및 독해

-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자유로운 형식

- 형식보다 내용 중심 평가
- 100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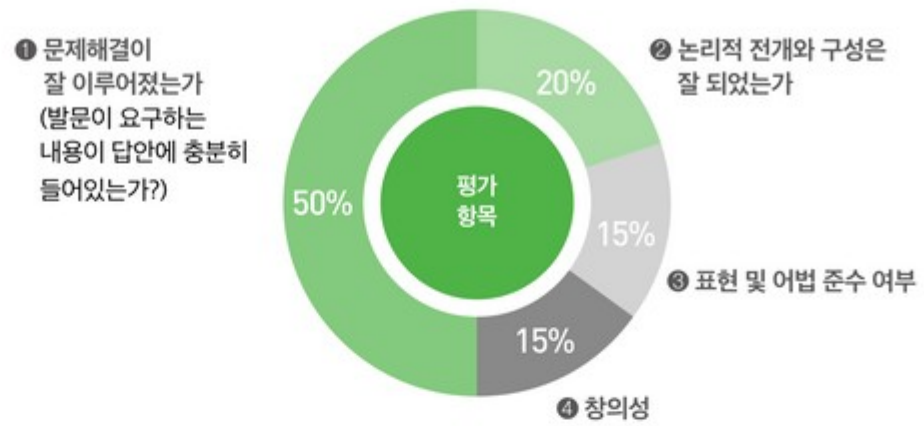
논술문제 유형

- 요약형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주제에 대한 견해 또는 이론을 담은 글들을 제시문으로 주고, (상반되는) 핵심 내용을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유형
- 평가형 / 설명형
(통계표나 그림과 같은) 자료나 제시된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문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견해 모두를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쓰는 유형
* 다양한 자료 및 사례에 대한 해석 포함
- 대안제시형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 혹은 문제 상황의 해결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유형
* 유형1과 유형2에 등장한 제시문, 자료, 사례 활용

3

2022 모의논술 개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 논술문제 전체 주제 :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제 선정 - 제시문 : 다양한 자료에서 교과서 내용에 맞고 고등학생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 수정 및 통합
전형적인 문제 유형	-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이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방식 - 요약형, 평가형/설명형, 대안 제시형 등 기존 유형 유지
평가 내용	- 독해력, 비판 능력, 자료해석 능력,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 등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 ②,③,④ 항목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출제위원이 말하는 성균관대학교 논술

1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

성균관대학교의 인문계 논술시험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탐구를 위한 기본 소양 및 자질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내신이나 수능 점수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깊이 있고 폭넓게 사고하는 능력과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다양한 텍스트와 자료에 대한 독해 및 해석 능력,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서술 능력을 평가한다. 본교 인문계 논술 시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대비가 가능한 '공교육 기반형' 논술을 유지하고 있다. 문항도 교과서의 주관식 탐구활동 문제 수준으로 출제하며 제시문과 자료도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되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문항의 주제나 소재를 고교 교과과정 안에서 찾아 활용하는 '교과과정 기반형' 논술을 유지하고 있다. 문항의 주제는 대체로 사회 관련 교과의 교과과정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선택하되 인문학과 사회과학, 혹은 사회과학 상호 간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쟁점을 논제로 구성하여 특정 교과목에 치중되지 않게 출제한다.

셋째, 단순히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을 주되게 평가하기 위해 텍스트의 분석 및 독해와 이를 활용한 실제적 문제 해결에 주목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교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해 배양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여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학업능력 신장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넷째, 사고력 평가를 주된 목표로 삼다보니 답안의 형식보다는 '문제 해결의 내용'에 주안점을 둔다.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적 서술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답안 글의 형식이나 분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원고지도 사용하지 않는다.

문항은 하나의 주제 하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개의 논제로 구성된다. '요약형'인 1번 문항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주제에 대해 견해 혹은 이론을 담은 3~4개 정도의 글을 제시문으로 주고, 이를 서로 다른 혹은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게 한 뒤 같은 입장의 제시문(들)을 종합하여 요약하게 한다. 이때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 보다는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문항은 사례나 자료를 주고 1번 문항의 두 입장에 대해 지지 혹은 비판하는 글을 쓰는 '평가형'이나, 제시문에 근거하여 사례나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형', 혹은 이 양자를 결합한 문항이 출제된다. 평가형에서는 사례나 자료가 어떤 점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상충하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제시문을 지지하게 되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형에서는 제시문이 밝히는 원리나 이론이 어떻게 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3번 문항은 전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이나 문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해결책을 제시하게 하는 '대안 제시형'을 출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원칙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대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2 논술시험 고득점 전략

- (1) 논술 학습은 각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총괄하여 다루며, 개별 지식 근저에 놓여있는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들이 관련되므로 내신과 수능 대비 학습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계 논술의 경우 사회 교과에서 사회적 쟁점을 활용하여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사고 훈련을 진행하면 된다. 실제로 논술 문항들은 교과서의 주관식 탐구활동 문제와 흡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 교과서의 주관식 문제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고 변형하여 한 두 단락 정도로 답을 써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이다. 이 문제들은 내용상 대체로 심화 응용문제들이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각 교과에서 교과서의 주관식 문제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내신, 수능, 논술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2) 제시문 독해 능력이 기본이므로 읽기 훈련이 필요하다. 읽기 자체의 배점도 적지 않지만 제시문을 잘못 파악하면 다음 문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밀도 있는 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3-4년 동안 출제된 논술 문제의 제시문을 읽기 훈련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특히 제시문을 각각 요약해 보는 훈련에서 시작해서 관점이 같은 복수의 제시문을 종합해서 요약해 보는 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
- (3) 최근 문제가 된 주요 사회 쟁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논술문제가 시사 쟁점을 직접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최근 주요하게 부각된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소재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의 주요 사회 쟁점에 대하여 문제 상황, 논쟁 구도, 자신의 입장 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4) 논리적 서술 능력을 기르는 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한 문단을 견고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므로 한 문단 쓰기 훈련에 상당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결론(중심 문장), 한 두 개의 근거(뒷받침 문장), 필요한 만큼의 부연설명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을 밀도 있게 구성하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 (5) 도표나 그래프와 같은 자료를 해석하는 훈련도 필수적이다. 일차적으로 사회 관련 과목 교과서에 나오는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연습하고, 최근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도표나 그래프를 신문 자료를 통해 선별하여 그 의미를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교사가 알려주는 논술시험 대비요령

신원고등학교 교사 박홍균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담당 과목이 '일반사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갖게 되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문항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낮은 것이다. 하지만 논술 전형의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 응시하여 본인 스스로 논술 고사가 수월했다고 답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선행 학습이 금지되면서 대학 논술 전형의 문항은 철저하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논술 문항의 주제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주제이며 이로 인해 학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논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논술의 주제가 익숙하다고 해서 난이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익숙한 주제의 문항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문제가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술 대비 요령을 작성하고자 한다.

문항1 분류 요약형

문항1의 경우 4~7개의 주어진 제시문을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구분하고 각 입장의 큰 틀 안에서 각 제시문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요약할 것을 요구한다. 문항1의 주제는 이어지는 2, 3번의 문항과도 높은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우선 제시문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중요 학습 요소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특히 사회 영역의 주요 학습 요소는 대부분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 효율성과 형평성과 같이 대립되는 개념이나 관점을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항1의 문제를 읽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상반된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제시문의 분류와 요약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문항1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제시문 독해 및 요약 능력이다. 제시문을 분류할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다 할지라도 제시문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동안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제시문 독해 및 요약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수험생이 접할 수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나 평가원 모의고사 등의 비문학 지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수험생의 내신 성적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과 논술 전형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대충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장으로 써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요약한 문장을 다시 읽고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항2 자료 평가형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항이 어렵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의 경우 바로 문항2에 대한 거부감을 그 이유로 꼽는다. 글을 읽는 것이 익숙한 학생들은 통계자료에 대해 막연한 부담감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현상의 법칙성과 의미는 대부분 통계자료로 표현된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유의미한 이해를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항은 주로 자료를 평가/설명하는 형태를 고수한다.

통계자료 분석 능력은 경제나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 연습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문화 과목의 1단원에서 제시되는 양적 연구, 질문지법, 실험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문화 문항 중 양적 연구 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묻는 문항, 사회 불평등 현상을 주제로 한 도표 분석 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을 지속적으로 풀이하면서 통계자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항2의 통계자료를 해결하기 위해 수험생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문항2는 문항1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문항2는 단순히 통계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문항1의 입장과 관련하여 통계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문항1의 입장에서 분석해야 한다.

문항3 논술 논증형

문항3의 경우 새롭게 제시된 상황에 문항1의 입장을 적용하는 문항이다. 여기서 어떠한 입장을 선택하였는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들 수 있는가?'이다.

문항3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일부 사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문항3에서도 문항1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 주장의 근거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제시문의 내용에서 일부 확장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해당하는 제시문의 내용은 본인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상반된 입장의 제시문의 내용은 비판하면서 논술할 때 출제 의도에 맞는 답안이 될 수 있으며 문항1에서 문항3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항1의 분류 기준과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되고 요약된 내용이 문항2와 문항3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사회 교과목 내용을 폭넓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필수과목인 '통합사회'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윤리, 지리, 일반사회 등 다양한 사회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폭넓은 개념을 학습할 수 있고 과목의 특징상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Q

논술 문제 제시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되나요?

A

출제의 기본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살펴서 수험생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서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주제에 관한 질문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제시문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인문계 제시문의 경우, 독서나 경험의 폭이 좁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정확한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제시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를 간파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출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첫째는 논술의 주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의 연관성입니다. 둘째는 제시문들의 가독성입니다. 이 두 요건은 우리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출제 목표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대비 가능한 논술시험'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을 공정한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의 출제입니다. 이 점은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 두 번째 문항의 출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의 창의성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 세 번째 문항을 통해 반영되는 포인트로, 수험생 나름의 견해 혹은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열린 문제(open question)'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Q

고3 학생들은 성균관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모의논술, 기출 문제 풀이로 논술 준비하기

올해 모의논술과 기출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수험생들이 논술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의논술을 풀어보면서 당해의 논술문제 방향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문계 논술 문제 중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모의논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때엔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이 가이드북에 수록된 '문항별 해설'이나 '답안 작성 포인트'를 잘 살펴보고 글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 교과서를 활용한 논술 준비

다양한 사회 교과서의 교과서들은 본문 외에 탐구 활동 또는 읽기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에 관한 심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많은 경우 본문의 주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또는 본문 주제에 관한 심화 읽기 자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이드북에 수록된 최근 기출 문제의 주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답안 작성 시 학생들이 피해야 할 점이나 실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핵심 내용 비켜 가기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답안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논술시험은 답(필요한 내용)이 있는 글쓰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잘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 답을 써야 합니다.

- 사족 덧붙이기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분량의 많고 적음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 일부 학생들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바르게 서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분량 늘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사족을 덧붙인 셈이 되어 본인인인 답안의 전체적인 논지를 흐리는 우를 범하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불완전한 답안 작성

제한된 100분의 시간 동안 답안을 충분히 작성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충분히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날려 버리는 학생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답안지를 깨끗하게 작성하려는 강박입니다. 잘못 쓴 부분을 무리하게 지우개로 지우다가 답안지를 찢거나, 자신의 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답안지를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도 자칫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0분은 처음 보는 제시문을 이해하고 요구하는 답을 쓰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하고, 작성한 답안 중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두 줄을 그어 수정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간 지저분한 것이 쓰다 만 것보다 좋습니다.

Q

답안의 내용 외에 글씨체, 맞춤법, 띄어쓰기도 채점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실질적인 답안의 내용 외에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조리 있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글씨체는 중요하지 않으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다 중간에 필기도구를 바꿔서는 안 되니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기본적인 소양이니 평소에 잘 훈련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답안 작성 후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답안에 직접 퇴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 역시 고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만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퇴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시험 전에 퇴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정 부호를 익혀 둔다면 보다 깔끔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가이드북 뒤에 첨부된 실전용 답안지로 연습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 보세요.

논술시험 유의사항

응시 전

시험 장소 및 시험 시간 확인

- ✓ 2021년 11월 3일 (수) 이후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ission.skku.edu>)에 이름과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 시험 장소는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수원)로 지정됩니다. 시험 장소까지의 교통수단, 소요시간도 미리 체크해두세요.
-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방법과 일정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 전에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준비물 확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이 들어 있는 학생증 등이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으니 꼭 챙기세요.
- ✓ 필기도구
- 볼펜, 연필, 플러스펜, 샤프펜슬 등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준비하되,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일에 시험장에서 나누어주는 필기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 답안 작성 중 필기도구 종류나 색상 변경은 불가하니, 동일한 필기구를 여유 있게 준비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 수정 도구
지우개는 사용 가능하지만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는 답안지에 사용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 여유 있게 출발

- ✓ 입실 완료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통 체증, 지하철 연착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꼭 여유 있게 출발하도록 합니다.
- ✓ 소요 시간을 예상할 때는 시험을 치르게 될 건물이나 교실까지 찾아가는 시간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 ✓ 논술시험 당일 시험장 안으로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시험 시간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시험 시간은 인문계, 자연계 모두 100분입니다.
- ✓ 제시된 문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답안을 작성합니다.
- ✓ 학교에서 제공한 문제지와 답안지 이외에는 어떤 연습지도 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하세요.
- ✓ 글자 수 제한은 없지만 문항마다 정해진 답안 영역 안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 분량을 미리 가능해 보세요.
- ✓ 답안지에는 꼭 답안만 작성하세요. 답안과 관계없는 내용이나 표시는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긴다면 답안을 아무리 잘 썼더라도 0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 답안 작성을 끝낸 학생들도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는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2021학년도 합격자 인터뷰

인터뷰 참여 학생: 인문과학계열 장지원,
글로벌 경영학과 김혜은

㉠ 논술전형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와 논술 전형에 적합한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었나요?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 국어 선생님께서 대입 전형으로 논술을 추천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독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해 꾸준히 독서를 해서 자연스럽게 텍스트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논리적 구조와 핵심을 파악하는 법을 익히는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점이 제 시문의 많은 문장 중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골라 경중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논술시험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혜은 중·고등학교에서도 글을 쓰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평소 글쓰기 연습이 잘 되어 있었고, 주장을 펼치고 글을 분석하는 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의 완성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시간 안에 주어진 제시문과 그래프, 도표 등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글을 빨리 읽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 본인이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제가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독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00분이라는 촉박한 시간 내에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은 역량 밖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독해한 내용 안에서 최선의 논리를 담으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던 게 도움이 되었어요. 또 논술 시험의 문항들은 하나의 핵심 주제를 다루며 밀접하게 연관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답안에 통합적인 사고를 담으려 한 것도 합격의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혜은 답안을 완성도 있게 서술한 것과 논술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항에 대해 일관된 입장으로 서술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공부할 때 실천처럼 연습을 해둔 덕에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 안에 답안을 완성한 뒤 남은 시간 동안 맞춤법, 작성한 답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도 있었어요. 또한 제가 아는 수준의 배경 지식을 끌어와서 글에 적용했어요. 전반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예시를 들어 쓴 것이 작성에 도움이 되었어요.

㉢ 언제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했고, 어떤 방법으로 논술전형을 준비했나요?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논술전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점은 3학년 1월이에요. 초반 3개월 정도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기보다는 유형별로 나누어 다양한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푸는 연습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제시문과 문제의 해석 방향이나 답안의 개괄적인 흐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 후부터는 지난 기출문제를 풀며 각 대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대비하는 훈련을 했어요. 저는 문제를 끝까지 푸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처음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고, 논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여름방학 이후부터 시간을 재며 시간 배분

감각을 익혔어요. 또한 문제를 푼 뒤 채점할 때, 예시답안보다는 함께 적혀있는 채점 기준과 문항 해설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후 다시쓰기 채점을 할 때 예시답안을 참고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채점 때에는 독해와 내용 위주로, 다시쓰기 채점 때에는 답안의 흐름과 문장 표현 위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혜은 저의 경우 고3 6월 모의고사가 끝나자마자 논술전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재지 않고 자유롭게 쓰고 답안을 보고 고쳐보는 식으로 접근했어요. 몇 번 기출을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글을 가다듬었고 시간 분배를 고려하면서 풀어보았고, 후반부에는 문제별로 답안을 쓰는 방식과 글의 구성을 정해놓고 썼어요.

또한 시간을 재고 글을 쓴 다음에 해설을 보지 않고 스스로 제 답안에 점수를 매겨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채점자라면 이 부분에서 감점할 것 같다' 등의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첨삭을 한 다음 해설과 비교했어요. 해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쓴 글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고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논술에는 보통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 사탐 과목과 관련된 개념이 나올 때가 많은데요, 이를 대비하여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이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대비했어요.

㉟ 내신, 논술, 수능 등 다른 전형 준비 역시 병행해야 했을 텐데, 부족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다른 전형과 동시에 준비해야 했기에 최소한의 공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논술은 결국 '글의 정확한 독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수능 국어의 독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에 고3 초반에는 고난도 지문 중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루에 하나씩 읽고 글의 구조를 분석하며 독해하는 시간을 통해 논술과 수능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했어요. 또한 입장 선택형 등 다른 구성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라면 이미 풀어본 것이라도 다시 풀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논술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논술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계획이 없으면 미루기 쉬운 것이 논술 공부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정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해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혜은 3학년 1학기가 끝나갈 때쯤 논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신보다는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를 병행해야 했어요. 보통 논술 공부하는 날을 주말 하루로 잡아놓고 나머지 요일에는 수능 공부를 했고요, 평일에는 수능 준비를 하고 이동 시간,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논술 공부를 하면서 헛갈렸던 개념을 정리했어요.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는 논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돼요. 논술 준비와 수능 준비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㉟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이 실제 논술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모의논술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모의논술 문제는 기출문제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다양한 자료나 사회 이슈들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는지 파악할 수도 있어요. 모의논술의 채점지침과 기준, 해설을 자세히 읽지 않는 수험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기존 기출과 비교해 가중치를 두어 읽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모의논술은 해당 학교가 그 해 논술 시험을 어떤 방향으로 출제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출과 비교하여 채점 기준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그저 문제 하나 푸는 것 이상의 수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해은 모의논술에서 성균관대 문제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 모의논술인 만큼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풀면서 현장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느껴보고자 했어요.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다가 막힐 수도 있고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의논술을 통해서 미리 그런 상황을 대비한 연습을 한다면 시험 당일에 도움이 될 거예요.

㉞ 논술 시험 당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나요?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사람들도 많아서 긴장이 되었고,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막막했어요. 주변 환경을 익숙하게 느끼기 위해 일부러 복도를 두 바퀴 정도 돌아다니면서 심호흡을 했더니 긴장이 서서히 풀렸어요. 그리고 성균관대 문제의 특징과 채점 기준을 정리해놓은 노트를 훑어봤어요. 시험에 임할 때에는 시간에 대한 초조함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했고, 문단 간 유기성을 위해 본 답안을 쓰기 전 간략한 틀을 구상한 뒤 답안을 써 내려갔어요. 끝까지 쓰고 나오기만 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해은 논술 시험 당일, 시험장 건물에 제일 일찍 들어가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시험 전날에도 봤지만 그동안 푼 성균관대 논술 기출을 다시 보았고, 성균관대 논술을 볼 때 제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을 따로 정리해간 것이 있어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 자료를 봤어요. 또 평소에 어렵게 느꼈던 영역도 따로 정리해서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시험을 보는 중에는 다른 수험생들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제 시험지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평소에 논술 답안을 쓰는 것처럼 쓰려고 하니깐 긴장도 덜 되고 집중도 잘 됐어요.

㉞ 논술 시험을 마치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생생하게 작성해주세요.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시험을 마친 직후에는 굉장히 지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세세한 표현이나 어휘 선택이 평소 보다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독해와 논리의 차원에서 크게 빠뜨린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높은 경쟁률 탓에 합불 예측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사실 고사장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도저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놀라고 기뻐했어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해은 고사장에서는 처음에 저만 시험지를 못 받았었는데 지체되는 부분 없이 바로 가져다주시고, 감독관님들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모습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고사장에서 나오면서는 굉장히 후련했는데 쓰고 싶었던 것을 다 썼고 제 답안에 후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만큼은 쓰고 나와서 합격 여부에 대한 걱정보다는 후련함과 안도감이 더 컸어요.

㉟ 성균관대 논술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균관대 논술 전형 준비를 위한 전략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성균관대 논술은 다른 대학에 비해 출제 유형이 일정해요.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 여러 유형이 섞여 있어 논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논술 전반과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훈련한 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내에서 답안의 논리를 뽑아야 하는 1번보다는 2번과 3번, 특히 주로 화제가 되는 사회이슈 등 다루는 3번에서 논리적이면서도 창의력이 돋보이는 답안을 쓴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답안을 써본 뒤 핵심 문장이 돋보이면서 전체적 흐름이 자연스러운 답안 구조를 익히는 것도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혜은 일단 제가 지원한 글로벌경영학과는 다른 과, 대학에 비해서 조금은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는 것이 논술전형 지원 시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 전공이 무엇인지가 첫 번째이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주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해요.

성균관대 논술의 문제 유형은 두 입장으로 분류, 요약하는 문제,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고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문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문제가 나오는 등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의논술을 통해 그 해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겠죠. 또한, 분량의 제한이 없으니 문제별로 분량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쓰는 연습도 해둬야 할 거예요. 결국 성균관대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㉟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인문과학계열 / 장지원 작년 이맘때의 저 역시 성균관대 논술 가이드북을 넘기던 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가이드북 합격자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워요.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높은 경쟁률에 '내가 과연 논술을 잘 선택한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공부가 그러하듯이 논술에 들인 노력 또한 배신하지 않아요. 다양한 논제를 접하며 제시문 독해를 훈련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다 보면 시험장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하는 일에 불안한 마음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길 바랄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년에 후배로 뵈는 날을 기다릴게요!

글로벌경영학과 / 김혜은 많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건강관리 잘하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을 믿는다면 고사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22학번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2

Chapter

2022학년도
모의논술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가이드북

1.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인문1]	26
2. 2022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인문1]	32
3. 모의논술 출제의도 및 출제방향 [인문1]	40
4. 모의논술 문제 분석 [인문1]	41
5.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인문2]	42
6. 2022학년도 모의논술 해설 [인문2]	48





2022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인문1)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1> ~ <제시문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40점)

<제시문 1>

만일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 지식,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용어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임을 깨닫는다면, 자유를 가버이 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일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다수가 자발성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자기만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점이 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경험의 중심이자, 주관성의 초점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만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어서 우리는 늘 그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각 개인에 내재한 인간성에 일련의 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성을 향해 어떤 태도, 즉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이 인간성에는 이성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욕망이나 충동에도 각자 나름의 특성이 담겨 있으며, 각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충동을 일정 정도로 느끼는 것이 위험하거나 크게 나쁜 일이 아니다. 욕망과 충동 역시 신념과 자제 못지 않게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 그 자체이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잘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은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창작물이 창작자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인류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한껏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며 활력이 넘칠 것이다. 고귀한 생각과 고결한 감정을 더욱 복돋워주게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 더욱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와 같은 활동들은 국가가 조직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풍요로운 사회는 전부 국가로 조직되어 있고, 국가가 없는 사회는 전부 극도로 궁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있다.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반(反)국가 이데올로기는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공식 통화에 등을 돌릴 테니 국가가 주관하는 국정 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갈아치울 것이다”, “새로 출현하는 각종 인터넷 편의 도구를 갖춘 슈퍼맨 같은 개인들이 저마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므로 국가가 강제하는 규제는 무시당하거나 무력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사되는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이 공간적으로 제약되는 국민 국가를 갈아치울 것이다”, “산업 세계의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대한 전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윤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더 우월할 것이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신만만한 미래상이다.

이들의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기술적 조류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3차원 가상현실 공간을 말한다. 기실 메타버스는 기술결정론자들의 꿈의 공간이라 할 만하다. 메타버스를 기술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인류의 해방을 돕는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읽히게 마련이다. 인종, 성별, 나이, 외모, 국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의 공간이자 역사적 고통과도 단절할 수 있는 이상적 도피처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획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고 도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이슈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995년 리처드 바브룩 등은 메타버스의 탄생이 왜 세계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열망이자 필연일 수밖에 없는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바브룩은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향하는 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는 정보테크놀로지가 개인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며, 또한 국민 국가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현존하는 사회적·정치적 및 사법적 권력구조는 자율적인 개인과 그들의 소프트웨어 사이의 제약 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대체되면서 사라질 것이다.” 실제 유명 기업의 임원인 존 카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가상현실(VR)의 연약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메타버스 예찬론자이기도 한 그는 기술기업들이 창조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고통 없는 인류,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아바타처럼 자신의 모습을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고 실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와 제약, 갈등과 고통과 이별할 수 있기에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미연방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하게 조여오고, 애플과의 경쟁에서 패한 뒤로 메타버스 기술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페이스북의 눈에 현실세계는 너무나 비대한 국가 권력이 자유를 옥죄고 있고, 회사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눈엣가시 같은 경쟁 기업들이 많기에 자신만의 메타버스에서 그들만의 통치체제에 따라 유토피아적 가상 행성을 만들려는 욕망을 불태우는 중이다. VR의 침체기를 넘어 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기술세력이 권력을 쟁취하고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해방구일 수밖에 없다. 그 공간에서는 정부에 불려 다닐 일도 없고 정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행성이다.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가 페이스북 특유의 반국가주의적 철학으로 스며들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 마케팅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제시문 3>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人格)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던,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던,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本人)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홉스가 말한 국가의 본질이다. 홉스는 이 인용문에 이어서 국가를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각자가 그 인격이 하는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권력을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신의계약에 따라 설립된 ‘인위적 인격’으로, 평화와 공동방위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힘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혹은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신의계약을 통해 그들의 모든 권력을 대표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설립된 주권 곧 국가권력은 절대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주체적으로 합의하였고, 계약의 주체로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러한 논거들에 기초하여 절대주권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절대주권론의 옹호는 사회철학자들이 홉스를 비판하는 요점의 하나이다. 홉스 자신도 이렇게 지나치게 강력한 절대주권에 대한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절대주권론을 옹호하는 홉스의 답변이다.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정념은 너무나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권력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으므로, 주권의 절대성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대주권론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도구적 이성관에서 도출된 논리적 귀결이며 다소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오늘날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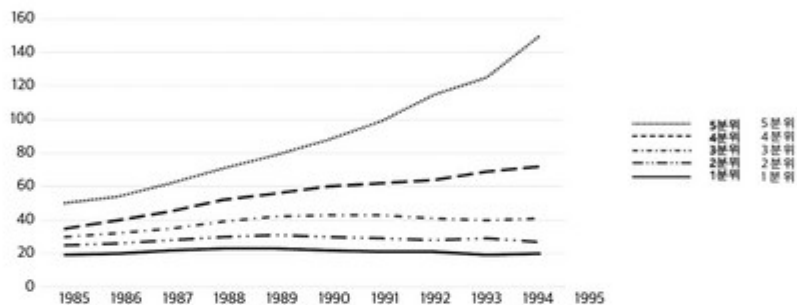
아래 <사례1>과 <사례2>를 토대로 [문제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40점)

<사례1>

국가 A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85년도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전격 시행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10년 동안 국가 A에는 아래 <그림1>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1>

실질소득(단위: 백만원)



*주: 그림의 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뉘어서 분류한 계층을 의미. 5분위는 최상위 20%, 1분위는 하위 20%를 의미함.

<사례2>

전통적으로 민권보다 국권이 우위에 있던 국가 B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우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신규 특허출원 건수도 급증했다. 또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어 공업중심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문제 3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시오.(20점)



2022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인문1)

01 2022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2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능력, 비판 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2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경제』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대중매체에 등장한 기고문 등의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견해가 사회적으로 표현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층위를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1> 『자유론』(J. S. Mill) (김비환 2018에서 재인용), 『사회철학』(Feinberg, 1973; Mathias Risse, 2017, '세계인권에 관한 철학적 탐구'에서 재인용)

<제시문2> 『자본주의의 미래』(김홍식 역, 2020), 『메타버스는 새로운 정치체제』(주간경향, 2021)

<제시문3> 『리바이어던』(T. Hobbes) (조금호, 강정인 2012에서 재인용)

[문제2]의 <사례> 역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1]의 두 입장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3]은 [문제1]에 제시된 주요 논지와 [문제2]의 사례를 활용하여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02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 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평가 항목

반영비율	항목
50%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20%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15%	표현력 및 어법
15%	창의성

문항별 배점

문제1	문제2	문제3
40점	40점	20점

채점 등급별 점수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F 등급
[문제1], [문제2]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0점
[문제3]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문제 1

1 채점지침

[문제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의 핵심 주장을 잘 정리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출제된 제시문이 총 세 개이기 때문에 한 입장은 제시문 하나만 요약하면 되지만 다른 입장은 두 개의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요약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였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지만,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그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제시문의 길이는 늘어났고, 제시문 수는 줄어들어 조금 더 호흡이 긴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난이도는 수능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문1>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제시문2>, <제시문3>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문1>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성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관점은 물론이고 각자의 욕망이나 충동도 각자의 인간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되므로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해야 스스로에게 가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 연대의 끈이 더 강해질 것이므로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2>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적대시하는 실리콘밸리 자유지상주의자를 비판한다. 특히 최근 기술적 조류인 메타버스를 국가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유도 피아적 기획으로 보는 그들의 생각 밑에는 정부의 간섭과 견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완벽히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시문3>은 우선 국가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인위적 인격으로서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다고 본 홉스의 절대주권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강력한 절대주권이 주는 불편함은 지배자가 없을 경우 초래되는 무질서로 인한 비참과 공포, 약탈과 분열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홉스의 변화가 오늘날에도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시문 3>은 국가의 간섭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초래되는 무질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2>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기술을 장악한 자본이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 인류를 자유롭게 지배하려는 기획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간섭이 없어져서 공적 기능이 약화될 경우 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기초로 각 입장을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이 둘일 경우에는 둘 사이의 논점 차이와 관계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2 채점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2>와 <제시문3>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2>와 <제시문3>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으나, <제시문2>와 <제시문3>을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문제 2

1 채점지침

[문제2]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자신의 주장을 자료나 사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문제1]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문1>)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문2>와 <제시문3>)이 등장한다. 학생들은 <사례1>과 <사례2>를 활용하여 [문제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비판해야 한다.

<사례1>에 제시된 <그림1>은 국가 A의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된 1985년을 기점으로 소득수준 최상위인 5분위 집단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집단들은 실질소득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실질소득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 최상위 집단(5분위)과 최하위 집단(1분위) 간의 격차는 계속 큰 폭으로 나타나고, 이 정책이 10년이 지난 1995년에 이르면 그 차이가 극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은 부유한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논리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시 하고 사람들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해주면 인류가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제시문1>의 자유주의적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더해 <그림1>에 나타난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승자독식 등의 현상을 <제시문2>와 연결지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즉, 자율적 개인들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인류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는 실리곤밸리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기실 기업의 이윤을 무한대로 추구하고 극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그림1>을 <제시문3>과 연계하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부여하면 결국 약탈과 분열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신의계약을 통해 국가권력에 절대성을 부여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기보다는 국가권력이 개입이 필요하며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함을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례2>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우위 사회였던 국가 B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사례2>에 따르면 국가 B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규제와 통제보다 중요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전환되면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공업의 비중이 농업보다 큰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이 사례를 토대로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없애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 결국에는 자율적 개인들이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 논리에 따라서 자유주의의 위험성과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는 <제시문2>를 반박하고, 특히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고 국민국가의 권력을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다양성이 존중되며 차별 없고 풍요로운 사회구현이 가능함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사례2>를 활용하여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번영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국가 주권은 절대성을 지닌다는 <제시문3>의 주장도 직접 반박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제시문1>과 관련지어 개인의 욕망과 충동이 지니는 순기능을 논하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율성과 개별성이 충분히 신장되면 차별과 불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시문3>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사례1>을 활용하여 <제시문1>에 등장한 자유주의 옹호론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사례2>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승자독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어 모두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는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례2>를 활용하여 <제시문2>와 <제시문3>에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반박하고, <사례1>과 같은 부작용이나 제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신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문1>과 연계하여 주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문제2]에서는 두 가지 입장 중 본인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사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각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을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한다.

2 채점등급

A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
B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비판을 전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입장을 각각 비판했으나 해당 제시문들을 충분히 연계시키지 못하여 비판의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사례1>과 <사례2>에 제시된 현상은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문제1]의 제시문들을 각 사례와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비판한 불충분한 답안
E	<사례1>과 <사례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부적절한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사례1>과 <사례2>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문제 3

1 채점지침

[문제3]에서는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취하고, 본인이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생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1]에 등장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일반 논리와 [문제2]에 제시된 유관 사례 및 자료를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다.

또한 제시문과 사례를 ‘모두’ 활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제시문과 사례를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내용도 풍부한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선택한다면, [문제1]의 <제시문1>과 [문제2]의 <사례2>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개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민간 부동산 시장 역시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놔두어야 하며 결과적으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제시문2>, <제시문3>이 지적하듯이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경우 투기 등의 혼란이 생기고 <사례1>과 유사하게 부동산을 매개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과 충동도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간성을 이루는 요소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를 정부가 억압해서는 안 되며, 개별성이 발전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욕망이나 충동이 부동산 쪽으로 획일화 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당장의 부작용은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개별성과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때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

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선택한다면, [문제1]의 <제시문2>, <제시문3>과 [문제2]의 <사례1>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일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겨두면 결국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을 매개로 한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갈등과 불평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반국가주의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서 그 절대성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제시문1>이 강조하는 개별성의 훼손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례2>의 결과와 반대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덧붙일 수 있다.

2 채점등급

A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모의논술 출제 의도 및 출제방향

인문계 논술 출제위원

올해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전체 주제인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경제』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이 주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의 유형도 앞서 설명한 성균관대 인문계 논술의 전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번 문항은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제시문은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전이 인간 행복의 기본 조건인데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면 이를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두 제시문은 국가의 간섭이 없으면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하면 우수 답안이 된다. 1번 문항의 경우 예년에 비해 제시문 수는 줄었고 제시문의 길이는 늘어났지만 문항의 기본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2번 문항은 학생 본인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사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앞의 두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면서 부정적 현상이 강화된 사례와 긍정적 현상이 강화된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각 사례로 1번 문항의 어느 입장을 비판할 수 있을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사례를 토대로 하더라도 비판의 논리를 얼마나 심층적으로 전개하였는지가 평가에서 주안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 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판 대상과 반대되는 입장의 제시문도 적절히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비판 대상이 되는 입장을 옹호하는 나머지 사례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옹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2번 문항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자료 해석 능력의 평가 비중이 줄어들었고 사례를 활용한 비판 능력의 평가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번 문항은 정부의 간섭과 관련하여 실제 쟁점이 되는 민간 부동산 시장 개입 문제에 대해 학생 본인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1번 문항의 제시문과 2번 문항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론적인 입장과 관련 사례를 구체적 쟁점에 적용하여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과 사례를 '모두' 활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제시문과 사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할 경우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내용도 풍부한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3번 문항의 경우 옹호, 비판 중 한 입장만 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배점이 줄어들었지만 이를 반드시 새로운 출제경향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배점은 학생이 작성하는 답안 분량과 읽기 부담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의논술 문제 분석

신원고등학교 교사 박홍균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인문1]은 지난해와 유형, 난이도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의 개인 자유 제한'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분류요약형, 자료평가형, 논술논증형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국가의 개인 자유 제한'은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며 사회 과목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이기 때문에 타당도가 매우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 '국가의 개인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 즉,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두 입장으로 구분하여 각 제시문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입장을 요약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의 논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난해한 표현이 없어 쉽게 해결 가능한 문항입니다.

[문제 2] <사례 1>과 <사례 2>의 내용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1]의 국가의 개인 자유 보장과 개인 자유 제한이라는 두 입장을 비판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사례 1>에서는 '작은 정부',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사례 2>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중시', '민권우위'라는 표현을 통해 두 사례 모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1>에서는 그래프를 통해 최고 소득 계층과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고 소득 계층에서만 소득 증가가 나타남을, <사례 2>에서는 경제 발전과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재편되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문제 1]과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3]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선택하여 본인이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서술하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입장이 정부의 민간 부동산 시장 개입의 정당화 또는 비판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문제 1]과 [문제 2]에서 제시문 내용 및 자료를 본인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제시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인문2)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1>~<제시문4>는 다수결 원리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40점)

<제시문 1>

창조적 인물이 나타날 때에는 다행히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몇 사람은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타성적이고 비창조적인 대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회적 창조의 행위는 창조적 인물 개개인의 노력이거나 아무리 많아도 창조적 소수의 노력이다. 그러므로 일단 전진이 있을 때마다 그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뒤떨어지게 된다. 민주주의와 산업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의 위대한 흐름은 극소수의 창조적 소수가 일으킨 것이고, 인류의 대다수는 아직도 이 거대한 새로운 사회 흐름이 나타나기 이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적·도덕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 '땅의 소금'을 자처하는 서구세계가 왜 오늘날 그 맛을 잃어버리려는 위협에 처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서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인간들은 아직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명의 성장은 창조적 개인들이나 혹은 창조적 소수의 세력에 의해 성취된다는 사실은, 선구자들이 열성적으로 전진할 때 그 게으른 후위부대를 같이 이끌고 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이 비창조적 다수는 뒤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하고 있는 문명들은 사회 내부에서 창조적 개인의 동적 운동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상태의 원시 사회와 다르다. 그리고 창조적 인물은 아무리 그 수가 많은 경우라도 결코 적은 소수를 넘지 못한다고 덧붙여 말해야 되겠다. 어떠한 성장기의 문명에서도 거기 관여하는 개인의 대다수는 정지한 원시사회의 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침체된 정치 상태에 있다. 그리고 또 성장기의 문명에 관여한 대다수는 교육이라는 걸치장을 지워버리면 원시인과 마찬가지로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격언의 진리성을 발견한다. 탁월한 인격, 천재, 신비가 혹은 초인이란 평범한 인간성의 덩어리 속에 있는 누룩 이상이 아니다.

창조적 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불붙이는 것은 틀림없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다. 비창조적인 일반 대중에게 창조적 선각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문제는 순전한 모방(mimesis)의 능력을 활동시키지 않고는 실제 사회적 규모로 해결될 수는 없다. '모방'은 미개한 인간이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통상적 능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것은 당장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결하다.

<제시문 2>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많은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이) X는 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X는 참이다." 라고 주장할 때에는 오류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왜 그럴까? 다음 주장들을 보자. "자유의지? 물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무직이 노무직보다 물론 더 낫다. 당장 아무에게나 물어 보아라. 그들은 연수를 받아 사무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첫째 주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이 —비록 그것이 참이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렇게 믿더라도— 자유의지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논증은 모든 사람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은 참일 수밖에 없다는 중세의 천동설 논증과 마찬가지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를 ‘대중의 호소’라고 부른다. 둘째 주장에서 노무직이 어쨌든 사무직보다 직업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보자. 어떤 생각이 널리 퍼지면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는 사무직보다 노무직이 더 행복한 삶을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무엇이 참인지를 바로 결정해 줄 수는 없지만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루에 다섯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다면, 나는 그것이 참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유럽에서는 식탁에서 소리 내어 코를 푸는 것이 별로 눈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 유럽인들로부터 듣는다면, 유럽인의 예절은 식탁에서 소리 내어 코를 푸는 것을 허락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오류는 아닐 것이다.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첫째 경우의 의사와 둘째 경우의 유럽인은 남들보다 제각기 두 주장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각각 문제가 된 주제에 대하여 일종의 ‘전문가’이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무엇이 참인지를 결정한다. 예컨대 낱말들의 의미는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ain't라는 표현이 정중한 담화에서는 부적당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ain't라는 표현은 정중한 담화에서는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 것이다.

특히 실천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대중의 믿음이나 의견에 의지하는 것을 논리적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제주도가 수련회 장소로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련회 장소는 제주도로 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오류가 아니다. 오히려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3>

민주주의에서 투표에서 진 소수자는 자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체로서의 인민’은 독재나 외세의 지배를 받을 때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결을 실천하고 있는 민족의 개개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한 투표에서 다수에게 질 경우 소수는 스스로 부과한 법률이 아니라 다수 동료국민에 의해 부과된 법률 아래에서 살게 된다. 도덕적으로 보면 그것은 지배엘리트나 식민권력에 의해 법이 부과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그런 차이가 정말로 자율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 투표에서 진 개인들에 한해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따를 자유가 없다. 그는 결국 타인들의 의지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에서 패배한 결과 억지로 다수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소수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독재자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을 향유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동등한 조건에서 법률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 기회는 비록 어떤 개인이 투표에서 진 경우에도 가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의견은 동등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투표하라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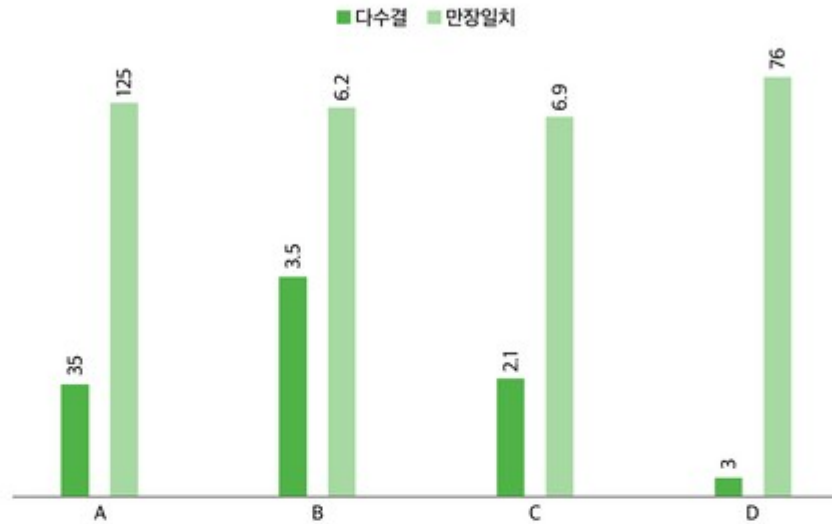
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했다. 모든 사람이 이따금씩 투표에서 지긴 하지만 평균의 법칙은 이번에 진 사람의 견해가 다음번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준다. 나머지 조건이 같을 경우 평균의 법칙은 맞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조건이 같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 하위집단은 계속 투표에서 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법률로 제정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투표에서 지는 하위집단의 구성원마저도 어떻게 법률제정 과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법이 독재자에 의해서나 외세에 의해 제정될 경우에는 누릴 수 없는 일정한 자치를 누린다고 주장해도 될까? 그리고 이런 참여가 과연 좋은 법이 제정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을까?

<제시문 4>

양식(良識)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양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도 양식을 지금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잘못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잘 판단하고,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부터 가려내는 능력, 즉 바로 양식 혹은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견이 서로 나뉘어 다르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또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좋은 정신을 지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위대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가장 큰 덕행을 할 수도 있고, 가장 큰 악행을 할 수도 있다. 아주 느리게 걷는 사람도 언제나 곧은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뛰어가되 곧은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전진할 수 있다. 나는 내 정신이 다른 보통 사람보다 더 완전하다고 주체념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나는 몇몇 다른 사람만큼 생각이 재빠르고, 상상이 빈틈없이 선명하며, 기억은 풍부하고 생생하기를 가끔 간절히 바랐다. 나는 이 여러 성질 외에는 정신의 완전성을 이루는 성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성, 즉 양식만이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짐승들로부터 구별케 하므로 나는 사람마다 그것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믿고 싶으며, 또 이 점에서는 철학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따르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종의 개체는 우연적 속성에서는 서로 많고 적은 차이가 있지만, 형상들, 즉 본성에서는 그런 차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 2

아래 <그림1>은 집단 의사결정에서 다수결 규칙을 적용했을 때와 만장일치 규칙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1>을 활용하여 [문제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40점)



<그림 1>

- A: 집단 의사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소요 시간(분). 의사결정 규칙 이외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함.
 B: 집단의 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 평균(1점=매우 불만족, 7점=매우 만족)
 C: 집단 의사결정 후 구성원들의 응집력 평균(1점=매우 낮음, 7점=매우 높음)
 D: 집단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가능성(%)

문제3

‘다수결 원리에 의존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0점)



2022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인문2]

01 2022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2학년도 예시문제(인문계)는 우리 대학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능력, 비판 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2학년도 예시문제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문제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다수결의 원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을 비롯한 사회 교과에서 민주주의 및 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제기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등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다수결 원리가 가진 장점과 약점, 다수결 원리의 근거 등을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1> 『역사의 연구』(아놀드 토인비 저, 홍사중 역, 2016)

<제시문2> 『Critical Thinking: Evaluating Claims and Arguments in Everyday Life』(Brooke Noel Moore & Richard Parker 저, 1986)

<제시문3> 『정치의 생각』(애덤 스미프트 저, 김비환 역, 2011)

<제시문4> 『방법서설, 성찰, 데카르트 연구』(르네 데카르트 저, 최명관 역, 1983)

[문제2]의 <그림1> 역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수결이 가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활용하여 [문제1]의 두 입장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3]은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02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 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평가 항목

반영비율	항목
50%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20%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15%	표현력 및 어법
15%	창의성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③,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항별 배점

문제1	문제2	문제3
40점	40점	20점

채점 등급별 점수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F 등급
[문제1], [문제2]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0점
[문제3]	20점	16점	12점	8점	4점	-

문제 1

1 채점지침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다수결 원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다수결 원리에 찬성하는 입장, 혹은 '다수결 원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수결 원리에 반대하는 입장, 혹은 '다수결 원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지만,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다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능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문1>, <제시문3>은 다수결 원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제시문2>와 <제시문4>는 다수결 원리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문1>은 문명의 성장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다수 대중은 지적,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서 창조적일 수 없으므로 창조적 소수를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수결을 바람직한 원리로 볼 수 없음을 함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3>은 다수결에 의해 투표에서 패배한 소수가 겉보기에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다수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누렸으며 평균의 법칙에 의할 때 다음번에는 이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다수결 옹호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반론의 핵심은 일부 하위집단은 계속 투표에서 패배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를 누린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좋은 법이 제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제시문3>은 정치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다수결 원리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제시문1>은 거시적인 문명사 차원에서 창조적 소수가 역사의 주체임을 주장함으로써 더 근본적 차원에서 다수결 원리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2>는 '대중의 호소'라는 논리적 오류를 언급하면서 다수결에 의해 어떤 주장이 참임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에 빠지지만, 실천의 맥락에서 다수의 의견에 의지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고 타당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다수결 원리는 타당하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4>는 양식 혹은 이성이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되어 있어서 특별히 더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여기서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제시문2>는 학문의 영역이 아닌 정치 사회의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다수결 원리가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다수결 원리가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며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시문4>는 다수결 원리의 근거로서 모든 사람이 양식 혹은 이성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적절히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2 채점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차이점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문제 2

1 채점지침

[문제2]는 <그림1>에 주어진 'A', 'B', 'C', 'D' 네 사례에 근거하여 [문제1]에 등장한 다수결 원리에 반대하는 입장(<제시문 1>과 <제시문 3>)과 찬성하는 입장(<제시문 2>와 <제시문 4>)을 각각 비판하는 문제이다. <그림1>의 사례들은 집단에서 다수결 규칙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와 만장일치 규칙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주요 현상들을 서로 대비시켜 보여준다. 학생들은 이 자료를 통해 다수결 규칙과 만장일치 규칙이 집단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1]의 두 가지 입장을 각각 비판해야 한다.

<그림1>의 사례 'B'를 보면 다수결 규칙은 만장일치 규칙에 비해 집단이 내린 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 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집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경우 소수 의견이 묵살되기 쉽고, 그에 따라서 집단의 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만족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례 'C'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수결을 채택한 집단은 만장일치 규칙을 채택한 집단에 비해서 구성원들의 응집력도 매우 낮다. 이 두 가지 사례 'B'와 'C'를 토대로 [문제 1]에 등장한 다수결 옹호론을 비판해야 한다. 즉, 다수결로 내려진 집단의 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낮고 집단 응집력도 저하된다면 실천의 맥락에서 다수의 의견에 의지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는 [문제1]의 <제시문2>의 주장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4>에서 주장하듯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집단이 내린 결정에 대한 동의와 만족 수준이 낮고 응집력이 낮은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반면, <그림1>의 사례 'A'를 보면 다수결 규칙은 만장일치 규칙에 비해서 집단이 결정을 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 이는 다수결 규칙을 적용할 경우 집단이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례 'D'를 보면 다수결 규칙을 적용할 경우 집단이 어떤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은 97%에 달한다. 이는 만장일치 규칙을 적용했을 때 집단이 어떤 결정에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76%에 이른다는 점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례 'A'와 'D'를 토대로 [문제1]에 등장한 다수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를 모방해야 한다는 [문제1]의 <제시문1>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창조적 소수를 모방하는 것은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효율적이 낮은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3>에서 주장하듯이 다수결은 소수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결 규칙을 적용할 경우 집단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다수결 원리를 옹호할 수 있다. 특히, 소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다수결에 비해 다소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 규칙이 적용되면 집단이 아예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다수결 원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

정리하면, [문제2]에서는 두 가지 입장 중 본인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와 무관하게, <그림1>에 주어진 사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각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네 사례들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을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한다.

2 채점등급

A	네 사례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
B	네 사례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비판을 전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네 사례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입장을 각각 비판했으나 해당 제시문들을 충분히 연계시키지 못하여 비판의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네 사례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문제1]의 제시문들을 각 사례와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비판한 불충분한 답안
E	네 사례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부적절한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네 사례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문제 3

1 채점지침

[문제3]은 다수결에 대한 학생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게 하는 문제이다. [문제1], [문제2]에서 이미 다수결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는 논거, 다수결 원리가 가진 장점과 약점에 대해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 논의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거나 활용하라는 조건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배점이 앞의 두 문제에 비해 1/2이란 점을 고려하여 시간과 분량을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다수결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제시된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수결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시문2>와 <제시문4>, 그리고 사례 'A'와 'D'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다수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시문1>과 <제시문3>, 사례 'B'와 'C'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때 평범한 답안을 벗어나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제시문과 사례를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제시문과 자료만을 활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주된 근거로 제시문과 자료에 없는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문제1]과 [문제2]에서 논의한 내용 중 필요한 것을 보조적인 근거로 제시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다수결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 혹은 조건부 반대의 입장을 택하여 다수결 원리에 제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다수결을 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앞에서 논의한 약점들 때문에 제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수결에 의존해야 할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혹은 다원화된 사회가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다수결을 택할 경우 승리한 쪽이 전체에서는 과반 미만이 되는 셈이라

서 또 다른 소수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다수결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2 채점등급

A	자신이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근거까지 제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자신이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지만 추가적인 근거까지 제시하지는 못한 답안
C	자신이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였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자신이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으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아예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	0	2	2	학	년	도	
성	균	관	대	학	교		
논	술	우	수	전	형		안 내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1. 09. 10(금) 10:00 ~ 09. 13(월) 17:00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21. 9. 10.(금) 10:00 ~ 9. 13.(월) 17:00
논술 시험장 발표		2021. 11. 3.(수)
논술시험	인문계	2021. 11. 20.(토)
	자연계	2021. 11. 21.(일)
합격자 발표		2021. 12. 16.(목) 이전
추가합격자 발표		2021. 12. 21.(화) ~ 2021. 12. 27.(월) 21:00

※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admission.skku.edu)

